

# 홍석후의 『신편생리교과서』(1906) 번역과 그 의미

박준형\* · 박형우\*\*

1. 서론
2. 츠보이 지로(坪井次郎)와 『新編生理教科書』
3. 『신편생리교과서』의 구성과 내용
4. 『신편생리교과서』의 번역 방식과 그 의미
5. 『신편생리교과서』와 다른 생리학 교과서의 비교
6. 결론

## 1. 머리말

제중원에서 의학교육은 개원 다음 해인 1886년에 의학생을 모집하면서 시작되었다. 알렌을 비롯한 의료선교사들은 조선에서 단순히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의학교육을 실시하여 조선인 의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중원에서 본격적으로 의학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예비슨이 제중원의 책임을 맡으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예비슨은 효과적인 의학교육을 위해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의학교과서의 번역·출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sup>1)</sup>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소: 120-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전화: 02-2228-2550 / 이메일: shimani5075@hanmail.net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겸 동은의학박물관 관장. 교신 저자

주소: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의대 해부학교실  
전화: 02-2228-1641/ 이메일: hwoopark@yuhs.ac

© 대한의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1) 박형우 · 박윤재 · 여인석 · 김일순, 「제중원에서의 초기 의학교육(1885~1908)」, 『의사학』

에비슨이 처음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그레이(Henry Gray, 1827~1861)의 『Anatomy : Descriptive and Surgical』이었다. 그러나 번역을 마친 원고가 두 차례나 분실되는 과정에서 먼저 출판된 것은 『약물학 상권(무기질)』(1905)이었다. 이후 1910년까지 에비슨은 거의 전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번역·출판하였다.<sup>2)</sup> 그중 현존하는 것은 『신편생리교과서』(1906), 『신편화학교과서(무기질·유기질)』(1906·1909), 『해부학(권1·2·3)』(1906), 『진단학(권1·2)』(1906·1907), 『피부병진단치료법』(1907), 『병리통론』(1907), 『무씨산과학』(1908), 『외과총론』(1910)이 전부이다.

현재 이 교과서들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번역·출판된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진전된 연구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에 필자들은 제중원에서 의학교육, 나아가 한국에서 이루어진 근대 서양의학 교육의 실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제중원에서 번역·출판된 의학교과서와 번역 원본을 직접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해부학(권1·2·3)』은 이마다 쓰카네(今田東, 1850~1889)의 『實用解剖學(卷1·2·3)』<sup>4)</sup>을, 『약물학 상권(무기질)』은 브루스(John M. Bruce, 1846~1929)의 『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제3판)<sup>5)</sup>을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인 홍석후가 번역한 『신편생리교과서』<sup>6)</sup>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의

8-1, 1999, 41~44쪽.

2) 박형우, 「우리나라 근대의학 도입 초기의 의학 서적-제중원·세브란스의학교에서 간행된 의학교과서-」, 『의사학』7-2, 1998.

3) 서홍관, 「우리나라 초창기 의학교과서」, 『의사학』3-1, 1994 ; 박형우, 앞의 논문, 1998 ; 박형우·박윤재·여인석·김일순, 앞의 논문, 1999.

4) 박형우·박준형, 「한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해부학 교과서와 편찬 배경」, 『대한해부학회지』39-6, 2006, 461~469쪽.

5) 박준형·박형우, 「제중원에서 『약물학 상권(무기질)』의 번역과 그 의미」, 『의사학』20-2, 327~353쪽.

6) 이 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에서 영인한 『濟衆院(세브란스)醫學教科書(四)』(아세아문화사, 2000)을 참고하였다.

서지학적인 사항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개략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가 있다.<sup>7)</sup> 최근에는 이 책의 내용이 생리학 일반을 넘어서 보건 · 위생 관련 상식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면서 의학전공자보다는 당시 중등학교용 교재로 적합했다고 이해하고, 나아가 이 때문에 에비슨이 의학전공자들을 위해 〈고등생리학(Advanced Physiology)〉을 번역했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up>8)</sup>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신편생리교과서』의 성격, 나아가 제증원에서 의학 교과서 번역 작업의 의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신편생리교과서』의 내기(內記)에는 이 책이 일본 의사 츠보이 지로(坪井次郎)가 쓴 것을 번역한 것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다. 필자들은 츠보이의 저술을 모두 검토한 결과 그 책이 1897년에 출판된 『新編生理教科書』<sup>9)</sup>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츠보이의 『新編生理教科書』와 홍석후가 번역한 『신편생리교과서』를 직접 대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편생리교과서』뿐만 아니라 제증원에서 의학교과서 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더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원저자인 츠보이 지로와 그의 저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원본과 번역본을 대조함으로써 번역 방식과 번역 용어, 나아가 번역의 의미까지 살펴보고자 한다.<sup>10)</sup>

## 2. 츠보이 지로(坪井次郎)와 『新編生理教科書』

### 1) 츠보이 지로의 약력

츠보이 지로(坪井次郎)<sup>11)</sup>는 1862년 7월에 사이다마현의학교(埼玉縣醫學

7) 박형우, 『한국근대서양의학교육사』(서울: 청년의사, 2008), 194~195쪽.

8) 여인석, 「제증원과 세브란스 의전의 기초의학 교육과 연구」, 『연세의사학』12-1, 2009, 46쪽.

9) 츠보이 지로의 『新編生理教科書』와 홍석후 번역의 『신편생리교과서』의 음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는 『新編生理教科書』로 일본어 서명을 그대로 씌우므로써 홍석후의 번역본과 구분하겠다. 또한 편의에 따라서는 전자를 원본, 후자를 번역본으로도 지칭하겠다.

10) 제증원에서 교과서의 번역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논문(박준형 · 박형우, 앞의 논문, 2011, 328~331쪽)에서 충분히 언급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11) 츠보이 지로에 대해서는 西川瀆八, 「坪井次郎(1862-1903年)-人と業績」(20~), 『公衆衛生』46(2), 1982, 142~143쪽과 西川瀆八, 「第12回労働衛生史研究會記録: 坪井次郎-その産



그림 1. 초보이 지로

校) 교장이었던 츠보이 타메하루(坪井爲春)의 차남으로 태어났다(그림 1 참조<sup>12)</sup>). 장남(俊太郎)은 1862년에 8세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그를 출산한 후 마진(麻疹)에 걸려 사망했다.

그는 1877년에 도쿄대학(東京大學) 의학부에 들어가서 1885년에 졸업했다. 1885년 독일로 유학갔다 돌아온 오가타 마사노리(緒方正規)가 도쿄대학교 의과대학에 위생학 강좌를 개설하였는데 그가 이 과목을 맡았다. 1887년에

는 이 대학의 조교수가 되었다. 이 시기 그는 「일본가옥환기론(日本家屋換氣論)」(『大日本私立衛生會雜誌』41, 1886)을 발표하는 등 위생학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그는 1890년 4월 제1회 일본의학회에서 1,680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가옥위생에 대해 계몽적인 강연을 하게 되었다.

한편 1880년부터 아시오광산(足尾鑛山)으로 인해 와타라세가와(渡良瀬川)의 수질이 오염되기 시작하다가 1890년 대홍수로 인해 엄청난 광독(鑛毒)피해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시오광독사건(足尾鑛毒事件)이다. 그는 이 광독사건을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산업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89년 12월에는 국정의학회(國政醫學會) 상회(常會)에서 오우(奥羽)지방의 광산위생을 중심으로 진애흡인병(塵埃吸引病)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1891년 독일 뮌헨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뮌헨대학 위생학교실에서 에머리히 교수(Rudolf Emmerich, 1852~1914)와 공동으로 콜레라 병원체, 탄저병, 결핵, 암종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귀국 후인 1895년에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業衛生學への貢獻-』, 『産業醫學』24-5, 1982, 525쪽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12) 西川瀨八, 앞의 논문, 1982, 143쪽.

그는 1898년 4월에 이노코 시카노스케(猪子止才之助, 1860~1944), 미야케 히즈(三宅秀, 1848~1938) 등과 함께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의과대학 설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899년에는 교토제국대학 의과대학이 발족할 당시 학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위생학 강좌의 초대 담당 교수가 되었다. 일본의 위생학 · 공중위생학 연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1903년에 41세의 젊은 나이에 심부전으로 사망하게 된다.

위생학자로서 츠보이의 저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문 연구서적으로서, 프라우스니츠(Wilhelm Prausnitz, 1861~1933)의 『Grundzüge der Hygiene』를 『衛生綱領』(1897)으로 번역한 것과, 『黴菌學新書(上)』(1899), 『ペスト病實習』(1900) 등을 저술한 것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중고등학교용 교과서를 저술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시 『新編生理教科書』(1897), 『新編中學生理書』(1898), 『中學生理教科書』(1901) 등의 생리학 교과서의 저술과, 『普通衛生學』(1891), 『學校衛生書』(1899) 등 위생학 교과서의 저술로 나뉜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 쿠마가와 우네오(隈川宗雄, 1858~1918)에 의해 개정판인 『(新訂)坪井生理衛生教科書』(1909)이 출판되었으며, 도오야마 촌키즈(遠山椿吉, 1857~1928)에 의해 『近世衛生學』(1911)이 출판되었다.

## 2) 『新編生理教科書』의 구성과 내용

홍석후의 『신편생리교과서』(1906)는 위의 『新編生理教科書』(1897)를 번역한 것이다(그림 2<sup>13)</sup>). 이 책은 표제지, 예언(例言)(4쪽), 목차(6쪽), 본문(228쪽), 간기(1쪽), 광고(1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목차를 보자.

13) 『新編生理教科書』의 표제지는 日本國會圖書館(<http://dl.ndl.go.jp/info:ndljp/pid/833819>)에서 다운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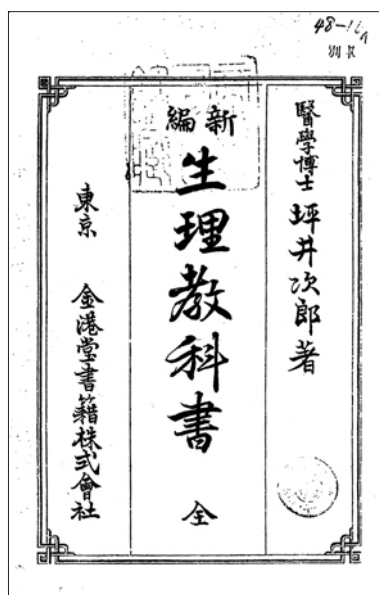


그림 2. 『新編生理教科書』 표지

#### 第一篇 總論

第一章 人體ノ構造, 第二章 人體ノ化學的成分, 第三章 人體ノ諸系統

#### 第二篇 骨系統

#### 第三篇 筋系統

#### 第四篇 皮膚系統

#### 第五篇 循環器系統及ヒ血液, 淋巴及ヒ淋巴管

第一章 循環器系統, 第二章 血液, 第三章 淋巴及ヒ淋巴管

#### 第六篇 呼吸器系統

第一章 空氣, 第二章 呼吸器ノ解剖, 第三章 呼吸器ノ生理

#### 第七篇 消化器系統

第一章 消化器系統ノ解剖, 第二章 消化器ノ生理, 第三章 新陳代謝, 第四章 體溫

#### 第八篇 泌尿器系統

#### 第九篇 神經系統

第一章 神經系統ノ解剖, 第二章 神經系統ノ生理

#### 第十篇 五官器系統

第一章 視覺器, 第二章 聽覺器, 第三章 味覺器, 第四章 嗅覺器, 第五章 觸覺器

이 책은 모두 1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편은 인체의 구조, 인체의 화학적 성분, 인체의諸계통을 다루고 있는 총론이다. 그리고 나머지 9편은 각론으로서 뼈, 근육, 피부,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신경, 오관기(五官器) 등 9가지로 구분해서 인체의 생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예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각 편에서는 먼저 각 계통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여준 다음에 생리·위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9편 신경계통에서는 신경계통의 해부를 설명한 후에 신경계통의 생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모두 88개의 삽도가 들어있다.

이 책은 예언에서 밝힌 것처럼 심상중학교(尋常中學校)와 심상사범학교(尋常師範學校)<sup>14)</sup> 및 그와 동등한 자격의 학교에서 생리학을 가르칠 때 사용하기 위한 교과서로 저술된 것이다. 이 책의 학습 목표는 사람이 생활하는 것의 원칙을 탐구하고 보통위생의 요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인체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인체의 생리작용과 위생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sup>15)</sup>

또한 이 책은 생리학 교과서이지만 의학에서 다루는 생리학만을 취급하지는 않았다. ‘제7편 소화기계통’의 ‘제4장 체온’의 ‘주옥(住屋)’에서는 체온을 조절하는 이학적(理學的) 작용의 사례로 환기법(換氣法)·난실법(暖室法)·실벽(室壁)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출판된 다른 생리학 교과서에는 거의 다루지 않는 보건·위생에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생리학 교과서에 이 부분이 포함된 것은 「日本家屋換氣論」(『大日本私立衛生會雜誌』41, 1886)이란 논문을 발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저술에서 가옥 위생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5편 제1장 순환기계통’의 설명에서는 지혈법과 같은 응급처치법이 소개되어 있다. ‘제6편 제3장 호흡기의 생리’에서는 이상호흡시 필요한 인공

14) 심상사범학교는 1886~1897년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각 府縣에 하나씩 설치된 학교이다.

15) 坪井次郎, 「例言」, 『新編生理教科書』(東京: 金港堂, 1897), 1~2쪽.

호흡방법[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생리학의 범위를 벗어난 보건·위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인체의 해부·생리를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보건·위생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 생리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中等教育生理衛生學』(齋田功太郎, 1897)처럼 제목상에서 알 수 있듯이 생리와 위생을 함께 다룬 교과서도 있지만 『中學生理教科書』(丘淺次郎, 1902, 修正改版)처럼 생리학 교과서에 '(前篇)生活作用'에 생리 부분을, '(後篇)生活條件'에 보건·위생 부분을 편제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생리교과서'라는 제목의 교과서에 생리학의 분야를 넘어서 보건·위생 부분까지 다룬 것은 당시 일본의 중등 교육 과정에서 생리라는 과목이 포괄해야 할 범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新編生理教科書』(A)는 1897년에 출판된 이후 재판이 발행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책은 츠보이가 쓴 다른 교과서들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1년 후에 출판된 『新編中學生理書』(B)를 주목해 보자. 이 책의 목차와 내용은 A와 거의 같다. 다만 A에서 언급된 지혈법, 인공호흡방법과 같은 내용이 일부 삭제되었다. 삽도는 A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으나 내용의 축약 과정에서 그 수가 88개에서 80개로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본문의 분량이 228쪽(A)에서 192쪽으로 약 15%정도 줄어들었다. 예언도 9가지에서 8가지로 줄어들었다. 한편 『新訂坪井生理衛生教科書』(1909년)의 서문에는 저자가 중학 과정에 적합한 생리위생학 교과서가 없는 점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1898년에 이 책(B)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츠보이는 A의 재판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B라는 중등학교용 교과서로 재판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도 더 이상 재판이 발행되지 않았다.

이후 츠보이는 1901년 11월에 『中學生理教科書』(C)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목차와 내용상에서 A·B와 거의 같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 150쪽으로 축소되었고, 삽도도 60개로 축소되었다. 예언도 B에서 8가지였던 것이 3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축소되었다. 이 책은 당시 일본 교육계의 반응이 좋아서 전국의 과반이 넘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츠보이는 1902년 2



월에 증정재판을 발행하였으며, 다시 1902년 11월에는 분량을 156쪽으로 늘려 증정3판을 발행하였다. 이후 그는 다시 개정판을 발간하려고 했으나 1903년에 사망하게 되었다.<sup>16)</sup>

츠보이의 사후에 그의 미망인이 남편의 지인인 쿠마가와 우네오(隈川宗雄)에게 『中學生理教科書』(C)의 개정판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자 쿠마가와가 그 뜻을 이어 받아 1909년 1월에 『新訂坪井生理衛生教科書』(D)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다시 그해 12월에 재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이후 1911년에 중학령(中學令)이 공포되자 1913년 3월에 증보개정판인 제3판을 발행하였다.

표 1. 츠보이의 생리학교과서 출판 상황

구분	연도	제목	분량(삽도)
A	1897.09	『新編生理教科書』	228쪽(88개)
B	1898.12	『新編中學生理書』	192쪽(80개)
C-1	1901.11	『中學生理教科書』(초판)	150쪽(60개)
C-2	1902.02	『中學生理教科書』(재판)	150쪽
C-3	1902.11	『中學生理教科書』(3판)	156쪽
D-1	1909.01	『新訂坪井生理衛生教科書』(초판)	135쪽(77개)
D-2	1909.01	『新訂坪井生理衛生教科書』(재판)	
D-3	1913.03	『新訂坪井生理衛生教科書』(3판)	

### 3) 『新編生理教科書』의 의학적 수준

그렇다면 츠보이가 쓴 『新編生理教科書』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반영하는 생리학 교과서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그가 이 책의 예언에서 참고한 13가지 서적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Jacob Henle, 『Grundriss der Anatomie des Menschen』

2) Adolf Pansch, 『Grundriss der Anatomie des Menschen』

16) 坪井次郎 原著(隈川宗雄 改訂), 「序」, 『新訂坪井生理衛生教科書』(東京: 金港堂, 1909), 1쪽.

- 3) Henry Gray, 『Anatomy』
- 4) Laurenz Schmitz, 『der Mensch und dessen Gesundheit』
- 5) Michael Foster 저 / Oscar Schmidt 역, 『Physiologie』
- 6) Leonard Landois, 『Lehrbuch der Physiologie des Menschen』
- 7) Ritter von Mosetig-Moorhof, 『Kurze Darstellung der Anatomie und Physiologie』
- 8) Richard Oestreich, 『Compendium der Physiologie des Menschen』
- 9) 山縣正雄, 『中等生理學教科書』
- 10) 足立寛 編, 『日本赤十字社篤志看護人會教程』
- 11) 內務省衛生局, 『衛生試驗彙報』
- 12)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被保人醫學的統計表」
- 13) 「明治生命保險株式會社被保人體格統計表」

이중에서 10~13은 주로 일본인의 보건·위생 관련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1~9의 참고 문헌을 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제이콥 헨레(Jacob Henle)(1)는 결핵균을 발견한 로버트 코흐(Robert Koch)의 스승으로서 19세기 중후반 독일의 대표적인 해부학·병리학자이다. 레오나르도 란도이스(Leonard Landois)(6)는 독일의 생리학자로 『Lehrbuch der Physiologie des Menschen』(1880)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헨리 그레이(Henry Gray)와 마이클 포스터(Michael Foster)는 영국의 대표적인 해부학자와 생리학자이다. 야마가타 마사오(山縣正雄)의 『中等生理學教科書』는 『新編生理教科書』 저술 이전의 일본의 대표적인 생리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츠보이는 19세기 후반 독일의 대표적인 해부·생리학자의 저술을 중심으로 그레이와 포스터처럼 영국의 유명한 관련 서적, 그리고 일본의 생리학 교과서를 참고하여 『新編生理教科書』를 저술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츠보이는 가장 먼저 『新編生理教科書』를 저술하고 이후 이 책을 토대로 압축하는 형태로 이후 책을 저술하였다. 따라서 츠보이가 저술한 일련의 교과서에는 당시 독일·영국·일본의

생리학 연구의 기본적인 성과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츠보이의 생리학 교과서는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였던 대표적인 교과서 중의 하나였다. 그중 『新編生理教科書』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오늘날 고등학교 혹은 대학 교양교재로 사용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제증원에서 선택한 『新編生理教科書』는 그의 생리학 교과서 중에서 내용상 수준이 가장 높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츠보이의 생리학 교과서는 중국에서 『中學生理學教科書』, 『新撰中學生理書』, 『中學生理衛生學教科書』 등으로 번역되었다.<sup>17)</sup> 이중 『中學生理學教科書』는 1907년에 초판이 발행되기 시작하여 1913년에 10판이 발행되었다.<sup>18)</sup> 청말민국초기(1890~1915) 중국에서는 27과목의 507종의 일본 교과서가 번역되었다. 이중 생리·위생 관련 교과서로 14종이 있는데<sup>19)</sup> 츠보이의 『中學生理學教科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츠보이의 『學校衛生書』는 教育世界社에서 『(最新)學校衛生書』로 번역되었다.<sup>20)</sup> 이처럼 츠보이의 생리학 교과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을 알 수 있다.

### 3. 『신편생리교과서』의 구성과 내용

#### 1) 홍석후와 『신편생리교과서』의 번역

홍석후는 1908년 세브란스병원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한 7명 중의 한 명이다(그림 3<sup>21)</sup>). 그는 (관립)의학교를 졸업한 이후 홍종은과 함께 1906년 2월에 세브란스병원의학교로 편입하였다. 그는 이미 의학교에서 일본인 교수에게

17) 譚汝謙 主編, 『中國譯日本書籍綜合目錄』(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80), 127·135쪽; 張仲民, 『出版與文化政治: 晚清的“衛生”書籍研究』(上海: 上海世紀出版集團, 2009), 114~120쪽.

18) 畢苑, 「漢譯日本教科書與中國近代新教育的建立(1895-1915)」, 『南京大學學報』3, 2008, 105쪽.

19) 畢苑, 앞의 논문, 2008, 93쪽.

20) 張仲民, 「晚清出版的生理衛生書籍及其讀者」, 『史林』4, 2008, 25쪽.

21) 『世富蘭德聯合醫學校 第7回卒業生紀念珍覽』(191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그림 3. 홍석후(1917)

수학하였기에 일본어에 능숙하였다. 따라서 홍석후는 에비슨과 김필순이 진행하고 있던 의학 교과서의 번역작업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이다.

홍석후가 번역한 『신편생리교과서』(그림 4<sup>22)</sup>)는 표제지(1쪽) · 내기(內記)(1쪽) · 예언(2쪽) · 본문(192쪽) · 생리학자전(23쪽)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번역본에는 원본의 목차가 생략되었으나<sup>23)</sup> 반면에 내기와 생리학자전이 추가된 점이 원본과의 차이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내기에는 “이 책은 일본의 스평정초랑(坪井次郎)씨가 쓴 생리서를 번역한 거시니라”라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원본의 저자가 츠보이 지로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쓴 일련의 생리학 교과서 중에서 번역본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新編生理教科書』(1897)이다.<sup>24)</sup>

## 2) 예언의 분석

다음으로 예언을 살펴보자. 원본의 예언은 크게 9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1) 독자의 대상, 학습 목표, 서술 방식, 2) 교과서로서의 체제를 채택한 것, 3) 자구에 주의해서 읽을 것, 4) 삽도는 본문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5) 중요한 술어는 흑점(黑點)으로 인명은 단선을 그어서 표시한 것, 6) 단위를 섭씨(℃), 입방센티미터(cm<sup>3</sup>), 그람(g), 퍼센트(%), 퍼밀(‰)로 통일했다는 것, 7) 권말에 주요식품성분 채색표를 첨가한 의미, 8) 독일 ·

2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3) 제중원에서 출판된 중에서 목차가 있는 것은 『진단학(1·2)』(1906·07)과 『폐부병진단치료법』(1907)뿐이다.

24) 제중원에서 출판된 교과서 중에서 원저(자)를 밝힌 것은 『신편화학교과서(무기질)』(1906), 『진단학(1·2)』(1906·07), 『해부학(권1·2·3)』(1906)뿐이다.



그림 4. 『신편생리교과서』 표제지

영국 · 일본학계의 참고 서적 13건, 9) 보조 교재로서 『新編生理教科書補遺』와 『生理衛生掛圖』를 소개한 것 등 9가지이다.

번역본의 예언에서는 원본의 1 · 2 · 3 · 4 · 6번만을 선택하여 번역하였다. 1번의 경우에는 이 책의 대상이 심상중학교와 심상사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술된 생리학 교과서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2번도 이 책이 교육용 교과서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머지 3 · 4 · 6번도 이 책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와 달리 번역본에서 생략한 5번의 경우를 살펴보자. 원본에서는 ‘바시니’ (228쪽)처럼 밑줄을 그어서 구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예언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번역본에서는 이를 ‘파시니’ (543쪽<sup>25)</sup>)로 표기하였다. 이처럼 외국 인명이나 용어를 음역한 경우에는 꺾쇠(「」)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이미 『약물학 상권(무기질)』에서부터 시작되어 제증원의 전 교과서에 통용되던 방식이었다. 따라서 번역본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예언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머지 부분도 번역본의 예언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책을 읽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홍석후가 원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면서 번역본의 체제에 맞게끔 예언의 내용을 일정하게 변형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앞의 책, 2000, 543쪽.

### 3) 본문의 의도적 편집

다음으로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목차상 양자가 같은 점을 볼 때, 번역본이 원본의 체제를 그대로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원본의 삽도가 88개인 것처럼 번역본에서도 그 숫자와 삽도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도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원본의 144쪽과 145쪽 사이에 있는「主要食品成分 彩色表」가 번역본에는 없다. 원본의 예언 7번은 바로 이 채색표에 대한 설명인데 번역본에서는 이 표를 생략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언도 생략했던 것이다. 아마 등사방식으로 인쇄하여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채색을 표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생략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본의 108쪽 폐활량의 부분에서는「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 被保人醫學的統計表」와「明治生命保險株式會社の 被保人人體格統計表」를 근거로 일본인 남녀 평균 폐활량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홍석후는 번역본에서 이 부분을 생략하였다. 아마 일본인의 남녀 평균 폐활량이 당시 한국인의 그것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자의 의도는 제7편 소화기계통, 제3장 신진대사, (2) 기호품, 3) 주정성음료(488쪽)를 설명하는 곳에서 엿볼 수 있다. 원본(154쪽)에서는 '알콜성음료(アルコール性飲料)'를 “日本酒・葡萄酒・火酒”의 순서로 서술하였다. 그런데 번역본에서는 “포도주와 화주와 일본주 그흔 것들인데”라고 하여 서술 순서를 바꾸어 일본주를 맨 마지막으로 돌렸다. 한국 의학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번역하는 홍석후의 입장에서는 비록 일본책을 번역하고 있지만 굳이 원본처럼 일본주를 맨 앞에 서술할 의미를 못 느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번역자의 이러한 의도적인 편집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번역이라고 한다면 거의 완역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홍석후의『신편생리교과서』를 그냥 원본의 완역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원본의 '제9편 신경계통 제2장 신경계통의 생리'에서 '반사운동' 부분을 서술

하면서 소뇌와 대뇌의 생리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202쪽). 그러나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에 이어서 ‘뇌수의 위생(腦髓의 衛生)’이란 절을 설정하고 9행에 걸쳐서 서술하였다(524쪽). 즉 원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필자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츠보이가 『新編生理教科書』(1897)를 출판한 뒤 1년 후에 저술한 『新編中學生理書』(金港堂, 1898)의 168쪽에 있는 내용이다. 물론 이 책에는 절 제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홍석후가 번역본의 체제와 내용을 고려하여 ‘뇌수의 위생’이라는 제목을 달아 편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홍석후가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츠보이의 다른 저술을 모두 검토한 후에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홍석후는 츠보이의 여러 생리학 교과서를 모두 검토한 후에 『新編生理教科書』를 번역하기로 선택하였을 것이고,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을 츠보이의 다른 책에서 보완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증원에서 번역 작업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 4) 생리학자전의 새로운 편제

마지막으로 『신편생리교과서』의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학자  
전에 대해 살펴보자. 이 부분은 원본에는 없는 번역본만의 독특한 구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자전은 ‘한국어/한자어/영어/쪽수’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예로 들면, ‘악하선/顎下腺/submaxillary glands/55’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단어의 배열은 ‘ㅇ · 흥 · ㄱ · ㅋ · ㄴ · ㄷ · ㅌ · ㄹ ·  
ㅅ · ㅊ · ㅌ · ㅍ · ㅈ · ㅊ’의 자음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순서는 『약물학 상권(무기  
질)』의 자전의 그것과 같다. 이 자전에는 모두 595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전의 구성은 『약물학 상권(무기질)』의 한글 자전과 그 형식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약물학 상권(무기질)』의 자전은 한글 단어, 한자어, 영어의 표기가 이미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sup>26)</sup> 그러나

26) 박형우 · 박준형, 앞의 논문, 2011, 339~341쪽.

생리학자전은 그와 사정이 다르다. 본문에는 세포(細胞)처럼 한자를 병기한 것도 있지만 골격이나 근육'럼 한글로만 표기한 경우도 있다.<sup>27)</sup> 원본에도 다른 설명없이 細胞・骨格・筋肉으로 되어 있다.<sup>28)</sup> 그러나 생리학자전에는 '세포/細胞/A cell/1'로 기록되어 있다. 골격과 근육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생리학자전에는 번역본의 본문에 없는 한글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었으며 원본에 없는 영문 의학용어를 넣었다.

이처럼 번역본에는 원본에 없는 생리학자전을 만들었다. 이것은 『신편생리교과서』가 단순히 번역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한국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편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전의 편제는 이미 1905년에 번역한 『약물학 상권(무기질)』에서부터 나타났던 것이다.

제중원에서 번역·출판한 의학 교과서 중에서 자전이 수록된 것은 위의 두 책이 전부이다. 그러나 예비슨의 이러한 노력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908년 8월 당시 의학사전의 번역으로 이어졌다.<sup>29)</sup> 물론 의학사전이 출판되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번역 중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출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전을 만들려는 노력은 단순히 의학용어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서양의학을 한국에 체계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30)</sup>

#### 4. 『신편생리교과서』의 번역 방식과 그 의미

##### 1) 한글 전용 번역의 원칙

『신편생리교과서』의 번역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을 든다면 한글 전

2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편, 앞의 책, 2000, 359쪽.

28) 坪井次郎, 앞의 책, 1897, 2쪽.

29)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to the Annual Meeting held at Pyeng Yang, Aug. 1908.

30) 여인석, 앞의 논문, 2009, 46쪽 ; 박형우·박준형, 앞의 논문, 2011, 339~341쪽.



용 번역의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은 1905년에 출판한 『약물학 상권(무기질)』에 이어서 1910년까지 번역한 제증원 교과서 전체에 해당된다.<sup>31)</sup> 이것은 의학교에서 번역한 『병리통론(病理通論)』(1902), 『해부학(解剖學)』(1907)이 토씨만 한글로 옮기는 국한문 혼용방식으로 번역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유병필의 『해부학』은 김필순이 번역한 『해부학(권1·2·3)』과 같이 이마다 쓰가네(今田東)의 『實用解剖學(卷1·2·3)』 번역한 것이어서 서로 비교가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자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한글 음으로만 썼을 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글을 뒤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었다. 세포(細胞) · 조직(組織) · 골계통(骨系統) · 척주(脊柱)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가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한자를 쓰지 않았다.

다음에는 영어를 사용한 예를 살펴보자. 『약물학 상권(무기질)』에서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생리학자전을 제외하고 이 책의 본문에서는 두 번만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책의 본문이 시작되는 1쪽의 제목에 ‘생리학(生理學) PHYSIOLOGY’라고 사용한 것이다.<sup>32)</sup> 원본에는 ‘新編生理教科書’로 되어 있지만 번역본에는 간단히 ‘생리학’으로만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자와 영어를 같이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제1편 총론 제2장 마지막에 ‘글리코진 GLYCOGEN’이라고 쓴 부분이다. 이 부분이 원본에는 ‘グリコーゲン’이라고 되어 있다.<sup>33)</sup> 그러나 번역본은 원본처럼 단순히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옮

31) 이러한 한글 전용 번역은 주로 선교사들이 번역·발행한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06년 베어드(Annie L. Baird)가 번역한 『동물학』(1906년), 1908년 베어드 부인(Mrs. W. M. Baird)이 번역한 『생리학 초권』, 1908년 에드먼드(Margaret J. Edmunds)가 번역한 『간호교과서(상권)』 등이 모두 한글 전용 번역의 원칙을 고수한 것들이다. 이러한 흐름은 조선서양간호부회에서 번역한 『실용간호학전서』(1931년), 『간호사』(1933년)와 같은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제시기에도 그 전통이 이어진다(박형우 · 박준형, 앞의 논문, 2011, 341~343쪽).

3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편, 앞의 책, 2000, 359쪽.

33) 坪井次郎, 앞의 책, 1897, 10쪽.

긴 것에서 그치지 않고 'GLYCOGEN'을 넣어 그 뜻을 좀더 분명하게 하였다. 이 단어는 생리학자전에도 포함되어 있다. 즉, 번역본에서 원본에 없는 영어를 사용한 것은 그 뜻을 좀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리학자전에서는 한글과 한자·영어를 모두 병기하였다.

## 2) 생리학 용어의 번역 방식

다음으로 생리학 용어의 번역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이 부분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본 한자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이다. 세포(細胞)·적혈구(赤血球)·백혈구(白血球)·피지선(皮脂腺)·순환기(循環器)·호흡기(呼吸器)·신진대사(新陳代謝) 등의 인체의 해부·생리학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한국보다 앞서서 근대 서양 의학을 수용했던 일본이 먼저 서양 의학 용어를 한자 용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같은 한자문화권인 한국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편생리교과서』에서 사용된 생리학 용어의 대부분이 이런 일본식 의학 용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들이다.

두 번째는 일본식 용어를 한국식 한자 용어로 대체한 경우이다. 人體를 신체(身體) 혹은 사람의 몸으로, 平滑筋을 활평근(滑平筋)으로, 爪를 조갑(爪甲)으로, 齒를 치아(齒牙)로, 汗을 한즙(汗汁), 住屋을 가옥(家屋), 室壁을 방벽(房壁), 視覺器를 시기(視器)로, 聽覺器를 텅기(聽器)로, 味覺器를 미기(味器)로, 嗅覺器를 취기(臭器)로, 觸覺器를 촉기(觸器)로 번역한 것이 그 예이다. 물론 원본의 단어를 뜻으로만 볼 때는 그 의미가 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 익숙한 단어로 대체한 것이다.

세 번째는 한자 용어를 한글로 바꾼 것이다. 尿를 오줌으로, 卵을 알로, 肉을 고기로, 味噌을 도장으로, 醬油를 간장으로, 牛肉을 소고기로, 馬肉을 말고기로, 菌茸類를 버섯류로, 塵埃를 먼지로 번역한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관

려된 용어는 생리학 용어라기 보다는 한자식 일반 명사를 순한글 용어로 바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일본식 음차어를 한국식 음차어로 바꾼 것이다. ‘淋巴及ヒ淋巴管’을 ‘림프’와 림프관’으로 번역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Lymph를 淋巴로 음차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음을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Lymph를 한국식 음인 ‘림프’로 번역한 것이다. 이와 달리 1907년 보성관번역부에서는 오카 아사지로우(丘淺次郎)의 『中學生理教科書』(修正改版, 1902)를 『중등생리학』으로 번역하였는데 여기에서는 淋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물론 이 책에서는 원본의 토씨만 한국어로 바꿀 정도로 일본식 용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홍석후의 『신편생리교과서』와는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한자식 용어로 바꾼 경우이다. ‘アルコール性飲料’를 주정(酒精, Alcohol)이라는 한자용어를 사용하여 ‘주정성음요(酒精性飲料)’로 번역한 것이다. 또 ‘クロール鹽類’를 ‘염소염류(鹽素鹽類)’로 바꾸었다. ‘クロール’은 ‘Chlorine’의 일본식 발음이다. 번역본에서는 이를 ‘염소염류(鹽素鹽類)’로 번역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식 음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의미 전달이 잘 되는 우에는 오히려 한자식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용어는 『약물학 상권(무기질)』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여섯 번째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쉽게 풀어서 번역한 경우이다. ‘莖葉類’를 ‘줄기와 잎사귀 종류’로, ‘香辛料’를 ‘향기와 미운 맛이 잇는 종류’로 번역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풀어서 씬으로서 그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중원에서는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일부 변형시켰다. 이것은 그대로 옮겼을 경우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번역상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식 용어를 새롭게 만들하고자 했던 것은 번역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서

양 의학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의학 용어의 주체적 수용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홍석후는 『신편생리교과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 생리학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를 우리말로 바꾸었다. 여기에서는 그중 사람의 몸과 관련된 人體・身體・人身이란 용어가 일본・중국과 한국에서 각기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가 『解體新書』(1774)에서 一身이라고 번역했던 용어를 오츠키 겐타쿠(大槻玄澤, 1757~1827)는 『重訂解體新書』(1826)에서 人身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후 『和蘭內景醫範提綱(卷1)』(1845)에서 인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Nouveaux Éléments de Physiologie』(B. A. Richerand, 1803)을 히로세 겐쿄(廣瀬元恭)가 『人身窮理』(1885)로 번역했다. 이런 가운데 메이지시기부터 『小學人體問答』(上田鹿太郎 編, 1875), 『人體部分問答』(加藤勤 編, 1885)처럼 인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후 해부・생리학 관련 서양 의학서적을 번역할 때는 『人體解剖學』(石井重義 編譯, 1882), 『人體解剖圖解』(川崎典民 抄譯, 1885)처럼 인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토마스 헉슬리(Thomas H. Huxley)의 『Lessons In Elementary Physiology』을 고바야시 요시나오(小林義直)가 『人身生理學』(1891)으로 번역한 것처럼 인신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즉, 영어의 (the human) body와 독일어의 (der menschliche) Körper의 번역어로서 인신과 인체라는 용어가 공존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1900년 이후부터는 인체라는 용어로 정착하게 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벤자민 홉슨(Benjamin Hobson, 合信, 1816~1873)이 『全體新論』(1851)의 「身體各論」에서 신체라는 용어와 함께 영어의 body를 인신으로 번역하였다. 이후 더전(John H. Dudgeon, 德貞, 1837~1901)이 번역한 『全體通考』(1886)에서도 the human body를 인신으로 번역하였다. 또한 일본 쿠레 쇼쥬(呉秀三)의 『人身生理學』(1893)이 제목 그대로 『人身生理學』으

로 번역되기도 하였다.<sup>34)</sup> 그러다가 1900년에는 덩푸바오(丁福保)가 『新撰人體解剖學』을 편역하였으며 1913년에는 두아치엔(杜亞泉)과 두지우티엔(杜就田)이 츠보이의 생리학 교과서를 『中學生理學教科書』(商務印書館)로 번역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인신이 아닌 인체라는 원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인신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점차 인체라는 용어가 정착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복

그렇다면 『신편생리교과서』에서는 인체 · 신체 · 인신이란 용어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자. 그 사례를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 A-1) 人體ノ構造 → 사람의 몸의 구조 : 12회
- 2) 人體ノ諸骨 → 몸의 모든 뼈 : 5회
- 3) 第5圖 人體骨格 → 제5도 사람의 골격 : 1회
- 4) 第3章 人體ノ諸系統 → 제3장 신체의 모든 계통(人體의 諸系統) : 5회
- 5) 第34圖 人體淋巴管身 → 제34도 인체의 「림프」관 : 1회
- B-1) 身體ヲ榮養スル → 몸을 기르는 : 2회
- 2) 身體ヲ榮養スル血液 → 전신을 먹이는 혈액 : 1회
- 3) 皮膚ハ身體ノ保護器 → 피부는 전체의 보호기 : 1회
- 4) 身體中ノ主成分 → 신체의 주성분 : 3회
- C-1) 皮膚ハ人身内部ニ就テ → 피부는 신체내부에서 : 1회
- 2) 人身ニ有害ナル寄生蟲ノ卵 → 사람의 해되는 기생충의 알 : 1회

먼저 인체라는 용어부터 살펴보자. 인체라는 용어는 번역본에서 ‘사람의 몸’, ‘몸’, ‘사람’, ‘신체’, ‘인체’로 각기 번역되었다. 이중 A-1 · 2 · 3은 인체라는 한자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고 인체를 지칭하는 다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A-1의 ‘사람의 몸’이 12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인

34) 張仲民, 앞의 책, 2009, 117쪽.

체를 ‘사람의 몸’으로 풀어서 번역한 사례는 김필순의 『해부학(권1)』(1906)과 베어드 부인의 『생리학 초권』(1908)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어서 인체를 신체로 번역한 사례를 살펴보자. 이중 A-4는 본문 장절의 제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체를 신체로 번역하면서 괄호 안에 ‘人體의 諸系統’이라고 기입함으로써 신체가 원본의 인체에 해당하는 용어임을 밝히고 있다. 번역본에서 이러한 사례는 5번 나온다. 그리고 1908년 전후에 번역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 『생리학(제1권)』(19~20쪽)에서도 신체라는 용어를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인체를 신체로 번역하였을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sup>35)</sup>에서 한말에 인체와 신체의 사용례를 검색해 보면, 신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인체라는 용어는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체를 신체로 번역한 것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인체라는 용어가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인체라는 용어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번역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A-5처럼 인체를 그대로 인체로 번역한 1례도 있으나 이것은 번역본에서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병필이 번역한 의학교의 『해부학』에서는 원본의 인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이 책은 이마다(今田東)의 『解剖學』을 거의 직역한 것으로 김필순이 『해부학』을 번역했던 것만큼 번역 용어에 대한 고민이 깊게 담겨 있지는 않다.

이처럼 번역본에서는 인체라는 일본식 용어를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신체로 번역하거나 이를 쉽게 풀어서 사람의 몸, 사람 혹은 몸으로 번역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원본의 신체라는 용어는 4가지로 번역되었다. 원본에서 이 용어는 인체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이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이미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지칭하는 단어로 큰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

35) <http://www.koreanhistory.or.kr>

들인 것으로 보인다(B-4). 그러나 홍석후는 원본의 신체라는 용어를 좀더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해 ‘몸’(B-1), ‘전신’(B-2), ‘전체’(B-3) 등으로 번역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김필순도 『해부학(권1)』에서 원본의 신체를 신체 혹은 전신으로 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신이라는 용어를 살펴보자. 원본에서 인신이란 용어는 2번 나오는데 그 의미는 인체 혹은 신체라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게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이미 한국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일본의 용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인지 홍석후도 번역본에서 인신을 신체와 사람으로 각기 번역했던 것이다.

당시 제중원에서는 의학교과서를 번역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많은 의학서적을 참고하였다.<sup>36)</sup> 또한 홍석후는 제중원에 편입하기 이전에 이미 의학교에서 일본식 의학교육을 받았다. 따라서 그는 당시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던 인체라는 용어에 누구보다도 익숙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인체라는 일본식 번역 용어를 신체 혹은 사람의 몸이라는 한국식 용어로 바꾸었다. 이처럼 홍석후를 포함하여 제중원에서는 일본의 의학 교과서를 번역하면서 그 용어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에서 서양의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토착화하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전통적 가치와 선교 의학의 융합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홍석후는 필요에 따라 원본을 완역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첨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본의 ‘第4篇 皮膚系統, 皮膚ノ清潔法及ヒ練習法’(51~54쪽) 부분과 번역본의 해당 부분인 ‘피부의 청결법과 및 연습법’(406~409쪽)의 내용을 비교해 보자. 원본에서는 피부의 연습법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방법 중 화장품의 과도한 사용 문제를 언급한다. 여기에

36) 「魚丕信博士小傳(廿五)-조선의료교육의 시작(二)」, 『고독신보』제867호, 1932년 7월 13일.



서 화장품 주요 성분은 백분(白粉)인데 여기에 다량의 납(鉛)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납중독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글을 맺는다.

홍석후가 번역한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또한 피부단장하는 일에 대하여 한마디 하려하니 대대 우리 몸은 하느님께서 정히 지어주신 거시니 피부를 정히 씻지 안코 부정이 가지는 거슨 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지어주신 이의 본의를 저버림이니 올흔 일이 아니어니와 이를 더욱 아름다이 하고져 하여 정히 씻은 우헤 소위 단장품이라 하는 거슬 칠하니 이는 정한 피부를 도로혀 더럽게 하는 것만 아니오 단장품이라 흔히 쓰는 거슨 전혀 백분인데 이 물건의 조성은 연을 만히 함유한 거시니 연은 유독한 금속이라 이를 오래 쓸 때는 그 해박음을 면치 못할 거시오 또 그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거슬 부족히 녀여 여분과 혹은 다른 수단으로써 고유한 모양을 변하려 하는 거슨 턴리에 불합하거늘 더욱 본방에 심하니 이는 악한 풍속이라 엇지 삼가 행할 거시 아니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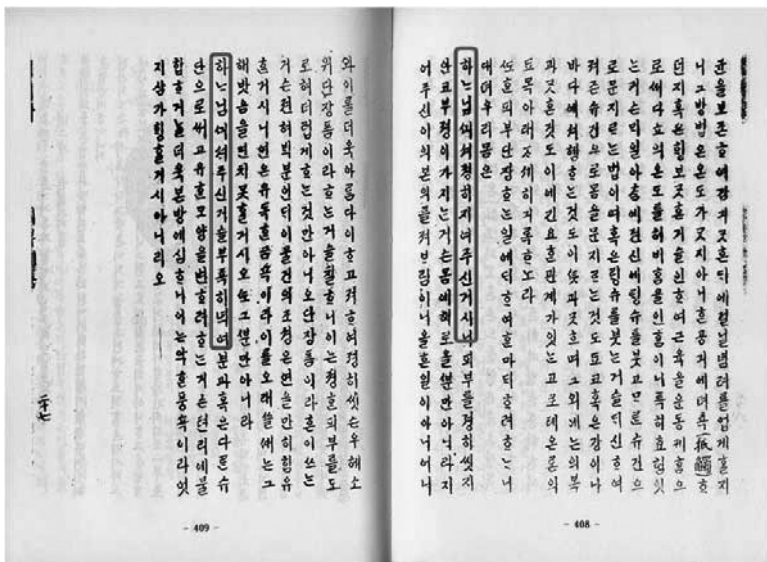


그림 5. 『신편생리교과서』에서 개행 부분



라고 되어 있다. 홍석후는 화장품의 장기 사용시 납중독의 위험을 지적하는 원본의 요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신체[피부]를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시각은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孝經』開宗明義 第1)라고 해서 부모가 물려주신 신체를 온전히 보전해야 한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신체관에서 신체를 물려준 주체를 부모에서 하나님으로 대체했다는 점이다.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설명되던 신체 보전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다. 홍석후가 이렇게 인식을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고 나아가 제중원이 바로 기독교 선교를 위해 세워진 병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용문에서 ‘하나님씩셔’라는 밑줄 친 부분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모두 행을 바꾸어 새로 시작했다. 이처럼 행을 바꾸어 쓰는 것을 개행(改行) 혹은 개두(改頭)라고 한다. 전근대 사회의 서책에서는 문장 중에 왕을 언급할 때 존경하는 의미에서 행을 바꾸어 다시 쓰는 것 즉, 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홍석후는 바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개행을 한 것이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던 홍석후에게 개행은 친숙한 개념이었을 것이다. 전근대사회에서 존왕(尊王)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 개행인데, 그는 그 개행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처럼 홍석후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독실한 기독교신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또한 그 자신이 한국에서 선교병원의 핵심이었던 제중원에서 이 책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한국에서 전근대의 전통인 개행과 서구의 근대 선교의학이 접목되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다고 본다.

## 5. 『신편생리교과서』와 다른 생리학 교과서의 비교

제증원에서 홍석후가 번역한 『신편생리교과서』와 이후 한국에서 번역된 생리학 교과서를 비교해 보자. 현재까지 한국에서 가장 빨리 번역된 생리학 교과서는 홍석후의 『신편생리교과서』(1906)이다. 이후 한국에서 번역·출판된 생리학 교과서와 그 원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7)</sup>

- 1) 金夏鼎, 『中等生理學』(普成館, 1907)  
丘淺次郎, 『中學生理教科書(修正改版)』(六盟館, 1902, 179쪽)
- 2) 任璟宰, 『中等生理衛生學』(徽文館, 1908)  
齋田功太郎, 『中等教育 生理衛生學(4판)』(敬業社, 1897, 173쪽)
- 3) 安商浩, 『新編生理學教科書』(義進社, 1909)  
渡瀬庄三郎, 『普通教育生理學教科書』(開成館, 1903, 150쪽)
- 4) Mrs. W. M. Baird, 『생리학 초권』(1908)  
William T. Smith, 『The Human Body And Its Health』(American Book Company, 1884, 185쪽)
- 5) 번역자 미상, 『生理學(卷一)』(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 1908년 전후)

먼저 1) 『중등생리학』의 원저자인 오카 아사지로(丘淺次郎, 1868~1944)는 『中學生理教科書』 외에 『近世生理學教科書』·『新編中等動物學』·『進化論講話』·『最新生理衛生教科書』 등 생리학, 동물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이다. 그중 『中學生理教科書』(179쪽)는 중등 과정의 학교에서 인체의 해부·생리·위생의 대의를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교과서이다.<sup>38)</sup> 즉, 이 책은 일본의 중등교육과정에 필요한 생리학 교재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37) 이외에 한말에 번역된 생리학 교과서로 安鍾和의 『初等生理衛生學大要』(廣德書館, 1908)가 있지만 초등용 교과서이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38) 丘淺次郎, 『序』『中學生理教科書(修正改版)』(六盟館, 1902), 1쪽.

김하정(1885~?)은 관립한성중학교 심상과 제1회 졸업생(1904)으로서 한성 고등학교 교관을 지낸 인물이었다. 당시 1905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는 민간 사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에 맞추어 민간 출판사들도 급증하였다. 그중 보성학원이나 휘문의숙은 설립 초기부터 출판과 인쇄 기능을 갖춘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교육활동을 보조하였다. 그 중 보성관은 학교 교재뿐만 아니라 신 지식층을 겨냥한 애국계몽 서적들도 많이 출판하였다. 보성관에서는 번역부를 두고 10여명의 전문 번역원을 동원해 단기간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교재들을 번역하였다.<sup>39)</sup> 김하정은 보성관 번역원의 한명이었으며, 『世界一覽』·『心理學教科書』(1907)·『最新算術』(1908)도 번역하였다.

이처럼 『중등생리학』은 일본의 중등학교 생리학 교재였던 오카의 『中學生理教科書』를 보성관 전문 번역원이었던 김하정이 번역한 것이었다.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해 본 결과, 김하정은 원본을 완역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淋巴·瓦斯·埃塵·蔬菜 등 원본의 생리학 용어뿐만 아니라 일본식 한자 용어를 거의 그대로 옮기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홍석후의 번역과 큰 차이가 있다. 전문 번역원으로서 김하정은 홍석만큼 생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생리학 용어를 한국식으로 바꾸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또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서적을 번역해야 했기 때문에 홍석후처럼 번역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임경재(1876~1955)가 번역한 『중등생리위생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임경재는 회계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후에 휘문고등보통학교 교장을 지냈다. 그가 번역한 『中等教育生理衛生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카의 『中學生理教科書』처럼 중등학교 생리·위생 교재로 출판된 것이다. 원본과 번역본을 대조해 본 결과, 이 책도 원본을 완역에 가깝게 번역하였으며, 김하정의 책과 번역방식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와 달리 안상호(1872~1927)는 1902년 도쿄자혜의학전문학교(東京慈惠

39) 권두연, 「보성관(普成館)의 출판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4, 2011, 26~36쪽.

醫學專門學校)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일본의 의사자격증을 획득하였다. 1904년 귀국하여 순종의 전의가 되었으며, 지식영이 세운 의학교의 교관을 맡았다. 1905년에는 교관을 그만두고 종로에 개인진료소를 열어 일반인들을 치료하였으며, 후에 한성의사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안상호는 김 하정·임경재와는 달리 의사 출신이었다. 하지만 번역한 내용은 앞의 두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한편 베어드 부인의 『생리학 초권』은 윌리엄 스미스(William T. Smith)의 『The Human Body And Its Health』를 완역한 것으로 당시 평양숭실학교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 책은 앞의 3책처럼 생리학 입문서로서 중등교육 과정의 교재로 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책의 말미에 색인을 실었다는 것이다. 색인어는 ‘영어/한글(한자)/쪽수’와 ‘한글(한자)/영어/쪽수’를 기입하는 두 가지 버전으로 편집되었다. 이것은 제중원에서 번역한 『약물학 상권(무기질)』과 『신편생리교과서』의 자전과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책의 내기에는 세브란스병원의 에비슨이 자신이 사용했던 용어목록(the list of terms)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번역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던 점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베어드 부인이 언급한 용어목록은 『신편생리교과서』의 「생리학자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그녀는 제중원에서 번역한 『신편생리교과서』의 번역 용어를 대부분 차용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5)의 『생리학(권1)』은 번역자와 연대가 정확하지 않다. 이 책의 첫 장에 ‘大韓醫院醫育部之章’이 찍혀 있다. 대한의원 의육부가 1908년 1월 1일부터 1909년 2월 4일까지 존속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1908년 전후에 번역되고 이후 대한의원의육부에 입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등사한 인쇄물을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묶은 선장본(線裝本)으로서 기본적으로 제중원에서 출판된 책들과 그 양상이 같다. 다만 제중원에서 한글 전용 원칙으로 번역한 것에 비해 이 책에서는 한글 옆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책의 목차는 생리학의 뜻, 물질, 힘, 원소의 물체, 동물의 신체의 구

조의 약론, 세포학, 조직학, 골격의 기계(機械), 근육조직의 생리학적 개론, 신경조직의 생리학 등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목차는 당시 생리학 교재의 일반적인 목차와 차이가 많이 난다.

한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에는 국한문 혼용으로 번역된 등사 선장본의 『生理學(卷2)』가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목차는 식물(食物)과 식물(食物)의 양제법, 소화, 흡수, 혈액, 혈액의 순환, 호흡, 동물의 온도 등 11~1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차상으로 볼 때, 이 책은 내용상 『생리학(권1)』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선 이 두 책을 어느 기관에서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다. 만약 그것이 밝혀진다면 한국에서 의학교육의 새로운 측면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홍석후의 『신편생리교과서』가 번역·출판된 이후 번역된 5권의 생리학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부분 보성관·휘문관·평양숭실학교처럼 당시 교육기관의 필요, 즉 교과서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번역되었다. 당시 근대화에는 전통적인 신체관에서 벗어나 근대적·과학적인 신체관을 바탕으로 보건·위생의 문제까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기관에서 번역된 교과서는 단순히 해당 학교의 교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및 신지식층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중원에서 번역한 『신편생리교과서』가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40)</sup>

한편 제중원에서 번역된 『신편생리교과서』는 이들 생리학 교과서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책들은 보성학교·휘문의숙·숭실학교처럼 고등 교육기관에서 근대적 학문의 하나인 생리·보건·위생학을 가르치기 위해 1차적으로 번역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제중원의 『신편생리교과서』는 이들 학교보다 수준이 높은 의학교 학생들의 전문적인 의사양성을 위한 교재로 번역되었던

4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된 『신편화학교과서(무기질)』(제중원, 1906)에는 “義州府 上泰峴 養實學院 中學部 內 金永瑞”라는 메모가 있다. 당시 제중원에서 번역한 무기화학 교과서가 의주부 양실학원 중학부의 김영서라는 학생이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것이다. 이 책의 원저인 『新編生理教科書』가 다른 중등용 생리학 교과서들과 달리 심상사범학교 오늘날 대학교양 교재로도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중원에서 선택하였을 것이다.

제중원에서 번역한 『신편생리교과서』가 의학생들을 위한 전문 생리학 교과서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제중원에서는 왜 이 책을 번역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당시 제중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제중원 의학생인 김필순·김희영·홍석후는 배재학당을 졸업하였고 이중 홍석후는 홍종은과 함께 의학교를 졸업한 후에 제중원에 편입하였다. 박서양은 선교사 무어가 세운 예수교학당을 잠시 다니다가 제중원에 입학하였으며, 주현측은 서록스가 세운 선천 미동병원에서 4년 동안 의술을 배운 후에 상경하여 1905년에 제중원에 들어왔다. 이처럼 제중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고르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의학 일반을 비롯하여 생리학 전반에 대한 입문서가 필요했을 것이고, 『신편생리교과서』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신편생리교과서』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번역한 생리학 교과서보다는 수준이 비교적 높았으나 의학 전문서적으로서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의학생들을 위해 좀더 수준 높은 생리학 교과서가 필요했던 것이다.<sup>41)</sup> 이와 관련하여 당시 예비슨은 1908년 8월 〈고급생리학(Advanced Physiology)〉의 번역을 끝낸 상태였다.<sup>42)</sup> ‘Advanced’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이 바로 생리학 전문 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1) 여인석, 앞의 논문, 2009, 47~48쪽.

42)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to the Annual Meeting held at Pyeng Yang. Aug. 1908.

## 6. 결론

1906년에 제중원에서 홍석후는 일본의 츠보이 지로의 『新編生理教科書』(1897)를 『신편생리교과서』로 번역·출판하였다. 원저자인 츠보이는 독일에 서 위생학을 전공한 의학박사로서 일본에서 위생학과 산업의학의 분야를 개척하였다. 이 책은 그가 당시 일본의 심상중학교·심상사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술한 교과서였다. 따라서 이 책은 의학생을 위한 생리학 교재라기 보다는 생리학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건·위생 관련 문제까지 다루는 넓은 의미의 생리학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홍석후는 『신편생리교과서』를 완역에 가깝게 번역하였다. 그러나 내용 중에서 일부 극히 일본적인 것을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끔 편집하였다. 또한 번역본의 부족한 부분을 원저자의 다른 저작에서 보완하였다. 그리고 원본에는 없는 「생리학자전」을 새롭게 편제하여 한국인 독자들에게 의학용어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신편생리교과서』는 제중원의 다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순한글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일본식 의학용어를 받아들이면서도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용어를 만들거나 바꾸었다. 이것은 번역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서양의학을 좀 더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화장품의 장기 사용에 의한 납중독의 문제를 하나님이 물려주신 신체를 잘 간직해야 한다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전근대 서책에서 이루어졌던 개행(改行)의 대상을 존왕(尊王)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었다. 이처럼 전통적 가치와 선교 의학의 융합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번역의 주체였던 제중원이 바로 기독교 선교를 위해 세워진 병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한말에는 『신편생리교과서』 외에도 적어도 5권의 생리학교과서가 번역되었다. 이들은 보성학교·휘문의숙·숭실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근대적 학문의 하나인 생리·보건·위생학을 가르치기 위해 번역되었다. 이에 비해

제증원의 『신편생리교과서』는 한말에 가장 먼저 번역되었으며, 이들 학교보다 수준이 높은 의학교 학생들의 전문적인 의사양성을 위한 교재로 번역되었다. 이런 점에서 홍석후의 『신편생리교과서』는 한말 생리학교과서 번역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색인어** : 신편생리교과서, 홍석후, 예비슨, 생리학, 츠보이 지로(坪井次郎)

투고일 2012. 10. 31.

심사일 2012. 11. 17.

게재확정일 2012. 11. 26.

## 참고 문헌 REFERENCES

### 〈자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편, 『濟衆院(세브란스)醫學教科書(四)』(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
- 「魚丕信博士小傳(廿五)-조선의료교육의 시작(二)」, 『괴독신보』제867호, 1932년 7월 13일.
- 坪井次郎, 『新編生理教科書』(東京: 金港堂, 1897)

### 〈연구논저〉

- 권두연, 「보성관(普成館)의 출판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44, 2011
- 박형우, 「우리나라 근대의학 도입 초기의 의학 서적-제증원·세브란스의학교에서 간행된 의학교과서-」, 『의사학』7-2, 1998
- 박형우·박윤재·여인석·김일순, 「제증원에서의 초기 의학교육(1885~1908)」, 『의사학』8-1, 1999
- 박형우·박준형, 「한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해부학 교과서와 편찬 배경」, 『대한해부학회지』39-6, 2006
- 박형우, 『한국근대서양의학교육사』(서울: 청년의사, 2008)
- 박준형·박형우, 「제증원에서 『약물학 상권(무기질)』의 번역과 그 의미」, 『의사학』20-2, 2011
- 서홍관, 「우리나라 초창기 의학교과서」, 『의사학』3-1, 1994
- 여인석, 「제증원과 세브란스 의전의 기초의학 교육과 연구」, 『연세의사학』12-1, 2009



- 譚汝謙 主編, 『中國譯日本書籍綜合目錄』(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80)
- 張仲民, 『出版與文化政治: 晚清的“衛生”書籍研究』(上海: 上海世紀出版集團, 2009)
- 張仲民, 「晚清出版的生理衛生書籍及其讀者」, 『史林』4, 2008
- 畢苑, 「漢譯日本教科書與中國近代新教育的建立(1895-1915)」, 『南京大學學報』3, 2008
- 西川溟八, 「坪井次郎(1862-1903年)-人と業績〈20〉-」, 『公衆衛生』46(2), 1982
- 西川溟八, 「第12回勞動衛生史研究會記錄: 坪井次郎-その産業衛生學への貢獻-」, 『産業醫學』24-5, 1982

- Abstract -

## Hong Seok-hoo's Translation of “*New Edition of Physiology Textbook*”(1906) and its Meanings

PARK Jun-hyoung\*, PARK Hyoung-woo\*\*

\*Dong-Eun Medical Museum,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 Seoul, KOREA

\*\*Department of Anatomy & Dong-Eun Medical Museum,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  
Seoul, KOREA

Hong Seok-hoo, who took charge of Jejungwon (濟衆院), was successful in translating Jiro Tsuboi's book titled “新編生理教科書 (1897)” and publishing it with a title of “*New Edition of Physiology Textbook*(신편생리교과서)” in 1906. Jiro Tsuboi, the original author of that book, was a doctor having majored in Hygienics in Germany and was also known to have done pioneering work in Hygienics and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in Japan. At that time, he wrote that book for the purpose of teaching his students at Ordinary Middle School(尋常中學校) and Normal School(尋常師範學校). Therefore, it was not intended as a Physiology

---

\* Curator of Dong-Eun Medical Museum, Yonsei Univ. College of Medicine  
Address: Dong-Eun Medical Museum, Yonsei Univ. College of Medicine,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120-749  
Tel : 82-2-2228-2550 / E-mail : shimani5075@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 PARK Hyoung-woo  
Professor of Department of Anatomy & Director of Dong-Eun Medical Museum, Yonsei Univ. College of Medicine  
Address: Department of Anatomy, Yonsei Univ. College of Medicine,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120-749  
Tel : 82-2-2228-1641 / Fax : 82-2-393-1885 / E-mail : hwoopark@yuhs.ac

Received: Oct, 31, 2012; Reviewed: Nov, 17, 2012; Accepted: Nov, 26, 2012

textbook for medical students, but an introductory book explaining Physiology with a wide range of subjects including hygienic matters in a broader sense.

Hong Seok-hoo made an almost complete translation of the “*New Edition of Physiology Textbook*.” While editing the book, however, he changed some of the most Japanese-style contents to meet the Korean conditions then, and made up for some insufficient contents with reference to the original author’s other books. Although it was not included in an original version of that book, he also compiled a physiology dictionary in order to help Korean readers acquire medical terms in a more systematic way.

Just like other textbooks of Jejungwon, the “*New Edition of Physiology Textbook*” was also put into Korean only. Hong Seok-hoo accepted Japanese-style medical terms, but also changed some of them or coined new words, considering the Korean circumstances then. He seemed to do so in an effort to introduce Western medicine in a more independent way while overcoming his limitations of translation. In particular, this book criticized that a long-term use of cosmetics might cause a serious lead poisoning from a Christian viewpoint, saying that a God-created human body should be kept intact as it is. In addition, in the course of reediting premodern books, the term “Lord” was changed into “God,” which is considered a kind of fusion between traditional values and missionary medicine. While translating books, Jejungwon could put such fusion into practice because it was a hospital established under the banner of the propagation of Christianity.

Besides the “*New Edition of Physiology Textbook*,” at least five physiology textbooks were also translated into Korean in the last years of Daehan Empire for the purpose of teaching students modern subjects

like Physiology, Health and Hygienic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Boseong School, Hwimun School and Soongsil School. On the other hand, the "*New Edition of Physiology Textbook*" was first translated at the end of Daehan Empire in order to foster more professional doctors in medical schools compared to those schools. In this respect, by translating the "*New Edition of Physiology Textbook*," Jejungwon can be considered as playing a pioneering role in translating Physiology textbooks in the late Daehan Empire.

**Keywords:** *New Edition of Physiology Textbook*(新編生理教科書), Hong Seok-hoo, Avison, Physiology, Jiro Tsuboi(坪井次郎)